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탄원서

의안 번호	22
----------	----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김영해의원외5인

1. 주 문

-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후보도시간 유치 활동이 치열해지면서 자국의 IOC위원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적 대사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박용성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탄원서"를 채택하여 보냄

2. 제 안 이 유

- 가. 우리군이 2014 동계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동계올림픽의 가치를 넘어 한국을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님.
- 나. 우리 평창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하고 있으나, 국제적 환경은 도시간 경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의 유치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 다. 우리군은 2010년 유치신청당시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비교우위의 명분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부의 지원 및 유치의지에 힘입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IOC위원을 통한 유치활동은 다른 후보도시들에 비해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라. 우리 평창은 IOC위원을 통한 유치활동이 절실한 때이나 한 분인 박용성 위원이 기업을 통한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고, 그로 인해 IOC위원 자격이 정지된 상태로 있어 우리나라는 IOC위원을 통한 유치 활동이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제한적인 실정임
- 마. 이에 국가적 대사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박용성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려는 것임

3. 참 고 사 항 : 해당없음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탄원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21세기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한 세계화의 틀 속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시고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된 사회의 조성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이끌어 가시고자 애쓰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 대한민국의 희망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단순한 동계 올림픽의 가치를 넘어 한국 올림픽의 완성과 세계3대 빅 스포츠 대회를 모두 치르는 것으로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가 차원의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점과 해외순방과 국민의 방한 시 평창유치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10월18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보고대회를 통해서 유치의 당위성과 정부의 전폭적인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신 점은 유치에 큰 힘이 되고 더욱 더 힘을 내어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7월 유례없는 수해로 인하여 실의에 젖어있을 때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올림픽 관련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지시해주신 덕분에 수해의 아픈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한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교훈으로 두 번 실패는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 속에 국민 모두 다시 하나가 되어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유치의 국제적 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도시 간 경쟁의 차원을 훨씬 넘어 국가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어느 도시도 유치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평창은 2010년 유치신청당시 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과 비교 우위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고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과 유치 의지에 힘입어 유치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으나, 자국의 IOC위원을 통한 유치 활동은 다른 후보도시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가장 큰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토리노 동계올림픽 기간은 후보도시들의 유치활동을 위한 최고의 기회였고 경쟁도시 IOC위원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나, 우리나라 IOC위원은 한 분도 참가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경쟁도시 IOC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상을 전해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평창은 두 분의 IOC 위원을 통한 유치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한때입니다마는 그중 한분인 박용성위원은 자신의 기업을 통한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해 IOC위원 자격이 정지상태에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자국 IOC위원을 통한 유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또한 법에 의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국가적 대사인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특별 사면 등의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평창군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IOC위원의 자격정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IOC위원들이 평창을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것이 혹여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한편 조심스런 마음입니다만

2014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반드시 유치하고자 말겠다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외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2014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넓은 관용과 선처가 있으시기를 우리 모두는 간곡히 바랍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통령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